

# 영광군 식품관리인증원과 손잡고 모시잎송편 HACCP 인증 박차

<안전관리 인증 기준>

2020년까지 의무 적용 대상  
‘떡업체 워킹그룹’ 조직 운영  
생산업체 기술 지원·교육도

영광군이 모시잎송편의 활로 모색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손을 잡았다.

영광군은 최근 지역 특산품인 모시잎송편(떡류)이 오는 2020년까지 HACCP(안전관리 인증 기준) 의무적용 대상에 오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기술지원팀과 협의를 거쳐 떡산업 육성부서와 함께 ‘떡업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협약에 따라 군의 떡산업육성부서는 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간담회 개최 등 조직운영을 맡겨지고 인증원은 워킹그룹 교육와 현장 기술지도, 전문 기술



영광의 한 식품업체가 자동화 설비로 모시잎송편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모시잎송편(오른쪽).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상담을 맡아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증원은 올해 ‘HACCP 워킹그룹’ 전담 심사관을 편성해 참여 업체별 기술 지원과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군은 HACCP 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다송유통영농조합법인 등 떡제조업체를 현장 방문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협조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군의 모시잎송편 생산업체들은 인증원에서 소규모 HACCP 기술 지원과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워킹그룹이 운영되면 기술 지원 신청서 작성과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명원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영광모시잎송편은 지역의 대표 특산품으로 가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 택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품목으로 떡제조업체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떡산업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또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워킹그룹이 운영되면 기술 지원 신청서 작성과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명원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영광모시잎송편은 지역의 대표 특산품으로 가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 택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품목으로 떡제조업체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떡산업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 사랑의 집수리 지원

### 한빛원전 1억원 기탁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집수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기탁했다.

올해 집수리 사업은 흥농읍과 백수읍, 법성면에서 선정된 14가구가 대상이다.

한빛원전본부는 ‘이웃에 사랑을, 사회에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영광군과 고창군(상하면) 151가구 집수리를 했다.

양장호 한빛원전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랑을 전하는 한빛원전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함평4-H 엑스포공원 등 2곳에 클로버동산

함평군은 함평4-H본부가 최근 함평엑스포공원 잔디광장과 나비 생태관 입구 2개소에 클로버동산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군과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5개 학습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 조성한 클로버동산은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우리 모두 함께해요! 겸손,

배려, 감사’를 슬로건으로 농업인 단체, 학교, 공무원 등 산·학·관이 함께 모여 제20회 나비대축제 준비·홍보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군정홍보와 나비축제 성공개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민·관·학이 혼연일체가 돼 20주년을 맞이한 나비축제를 성공시키자”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 ‘보물의 섬’ 증도서 ‘슬로시티 보물찾기’ 축제

5월 4일부터 27일까지

소금밭·머드체험 등 행사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섬인 신안군 증도에서 ‘슬로시티 보물찾기’ 축제가 5월 한 달간 개최된다.

신안군이 ‘바다와 갯벌이 만든 배비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27일까지 한 달여간 걸쳐 진행되는 이 행사는 슬로시티 신안 전지역 확대를 기념하고 슬로시티위원회와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구성됐다.

메인 프로그램인 ‘슬로시티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증도면 입구의 ‘관광 안내소’에서 보물섬 지도를 받고 증도의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물이 숨겨진 증도의 각 장소를 방문하여 보물지도에 스탬프를 찍고 미션을 수행하면 미션마다 다양한 보상이 주어지고 완주하면 마을에서 준비한 특별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슬로시티 보물찾기 행사와 함께 소금밭체험, 머드체험 등 증도의 생태체험을 비롯해 찾아가는 영화관과 재할용 약기 공연, 청춘버스킹, 매직 퍼포먼스, 물고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이 기간

집중된다.

신안군은 이번 축제에서 단체 여행 또는 버스 연계를 통해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한바퀴 투어 상품’도 판매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5월 한 달은 증도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은 지난 4월 초 슬로시티 전지역 확대 재인증을 받은 가운데 슬로시티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신안 스마트 투어’ 모바일 어플 개발

여객선·관광명소·맛집 등 증강 현실 연계 서비스

신안군이 최근 관광트렌드인 ‘스마트 관광’ 편의를 위해 증강 현실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투어 어플은 여러 곳에 산재한 여객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고 배편 찾기 기능과 관광명소·숙박·맛집·특산물 등 섬 관광 정보, 여행노트 등 SNS 공유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관광객이 신안을 여행할 때 배

편과 항구 위치, 배 시간 등을 일일이 알아 봐야 하는 애로가 있었지만 배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출발항이 한정되고 현 위치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가는 경로도 알 수 있어 섬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특히 ‘about 전남의 섬’ 사이트에 등록된 76개의 유인도와 781개의 무인도에 대한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와 연동돼 지역의 크고 작은 섬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5월 한 달간 모바일 어플 출시 기념으로 ‘증도’ 관광지 5곳을 인증하고 여행노트에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신안군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요 관광지 외 와이파이를 설치해 스마트 관광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스마트투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신안 스마트투어’로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무안군 12억 투입

### 631ha 숲 가꾸기

산림관계자 등 현장토론회

무안군이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적극 나선다.

무안군은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31ha의 산림에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세부사업으로 ▲식재 후 생육에 지장을 주는 조림목 주변의 잡초나 활착목을 제거하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임목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제거사업 ▲조림 후 5~10년이 경과된 조림목과 경쟁하는 잡목류를 제거하고 조림목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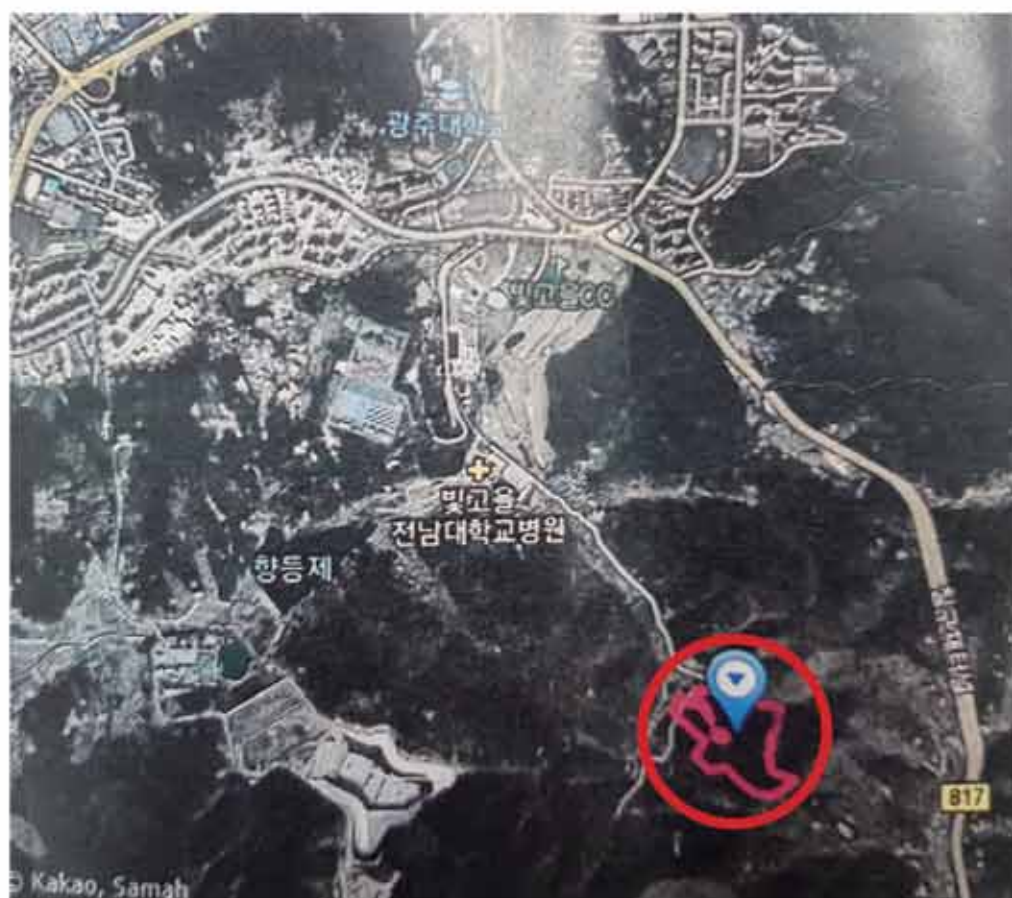
치기를 하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우량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솎아베기를 하는 큰나무 가꾸기 등을 추진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몽탄면 사천리에서 무안군 산림관계자와 무안군산림조합, 숲 가꾸기 사업 참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가꾸기 현장토론회’(사진)를 열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 땔감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무료로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산림 부산물로 톱밥을 생산해 축산농가 등에 한 가격에 판매하는 ‘톱밥 생산·판매 사업’도 펼치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0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8-1230